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 | | | |
|------|------------------------|------|-----------------|
| 학과 | 보건행정경영 | 이름 | 임*진 |
| 파견국가 | 미국 | 파견도시 | Fayetteville |
| 파견대학 | University of Arkansas | 파견기간 | 2017.08~2018.05 |
| 귀국여부 | | |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파견대학 | <p>아칸소 대학교는 페이엇빌에 위치해 있으며 전체적으로 시골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기도 좋고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넓은 들판과 높은 하늘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은 없지만 무료 순환 버스가 있어 시간을 낸다면 쇼핑몰이나 월마트에 갈 수 있습니다. (http://campusmap.uark.edu 참고) 처음에는 학교가 너무 커서 강의실을 가는데 많이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개강하고 나서는 구글 맵을 정말 많이 이용했는데, 수업 듣는 강의실 건물만 잘 알아두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여유롭게 캠퍼스 산책도 다니고, 길도 익숙해지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제학생 오리엔테이션 주에 캠퍼스 투어라는 행사가 있기는 하지만 학교가 넓어서 너무 많은 곳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칸소 대학교뿐만 아니라 미국의 거의 모든 건물들은 장애인을 배려한 시설들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지어진 지 꽤 지난 만큼 오래 된 건물도 있지만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페이엇빌에서 지내면서 만난 사람들은 다들 너무 착하고 친절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국제 학생들이 정말 많고, 학교에서 국제 학생들과의 행사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이것저것 찾아 다니면서 열심히 참여한다면 그만큼 좋은 경험을 얻을 기회가 많습니다.</p> |
| | <p>1. ELAC 0011 Grammar through editing(1학점) 1학점 수업으로 문법 수업입니다. Kevin 교수님 수업이었는데 한국에서 문법을 배웠던 것과 살짝 내용이 달랐지만 비교적 쉬운 수업입니다. 매 수업 마다 과제가 있는데 과제도 조금씩 내주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수업입니다. 퀴즈, 중간, 기말 있습니다.</p> |

2017-2학기
수업

2. ELAC 2023 Business English communication(3학점)

기본적인 마케팅 수업으로, Kevin 교수님 수업 추천합니다. 영어 이력서도 작성 해 보고 꼼꼼히 검토해 주십니다. 비즈니스 관련 용어를 새로 외워야 하는 게 많지만 대체적으로 수업 분위기는 좋습니다. 교과서 문제 풀기 과제는 주마다 있으며 시험은 전부 서술형 문항으로 수업에 배운 것만 나오지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즈음 마지막에 두 명씩 조를 짜서 마케팅 팀플이 있습니다. 에세이 과제 3번, 중간, 기말 있습니다.

3. ELAC 2043 Seminar in US culture, communication and institution(3학점)

이 수업은 학기마다 교수님이 바뀝니다. 제가 교환학생으로 있을 때에는 Wendy 교수님께서 수업을 해 주셨습니다. 미국 문화에 대해 배우는 수업이고 국제학생들끼리 듣는 수업이지만 교수님께서 요구 하시는 게 정말 많아 생각보다 힘든 수업이며 추천하지 않습니다. Crystal bridges라는 Bentonville에 있는 museum으로 견학도 가고 glass menagerie라는 연극도 보러 가지만 다녀온 뒤에 있는 과제(보고서) 및 발표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 문화에 대한 설문조사 과제가 있으며 토론 및 발표가 많은데다가 중간 기말 시험도 다 있어서 전공 과목보다 더 힘들게 느껴졌던 수업이었습니다.

4. PBHL 2101 Special topics: Resilience and thriving(1학점)

Ed Mink 교수님 수업으로 건강에 대한 주제로 수업 정원이 20명이며 명상 이라던지 요가에 대한 수업을 해 주십니다. Special topics 라는 수업은 한 학기 내내 수업하지 않고, 1/2학기동안만 수업합니다. 일주일에 한 편씩 수업 내용이나 특정 주제에 대해 에세이를 쓰는 게 과제이며, 시험은 따로 없고 마지막에 resilience에 대한 조별 발표가 있습니다. 저는 학점을 채우기 위해 들었던 수업이지만 가볍게 듣기 좋은 수업입니다.

5. PBHL 2101 Special topics: Women's health issues(1학점)

Susan Rausch 교수님 수업으로 여성 리더십, 식생활 관리 및 여성 건강에 대한 수업입니다. 수업 주제에 대한 과제가 3번 있으며 논문을 읽고 요약 및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는 과제가 한번 있습니다. 1/2학기 수업이라 바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미리 학기 초부터 마감 기한 및 과제 주제에 대해 다 알려주시며 교수님께서 마감 날짜를 늘려주시기도 합니다. 이 수업도 학점을 채우기 위해 들은 수업이지만 중간, 기말 시험이 없어서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 | |
|------------------------|---|
| <p>2018-1학기 수업</p> | <p>6. PBHL 3643 Public health program planning and evaluation(3학점) 제가 전공 학점 인정을 위해 들었던 과목으로 Susan Rausch 교수님 수업을 듣는 게 좋습니다. 보건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대한 수업입니다. 교수님께서 ppt 자료로 수업을 해 주시는데 중간 및 기말 시험이 없고 마지막에 있는 팀플 점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중간중간 조별 과제를 제출해야 하지만 어렵지 않고 교수님께서 과제 채점을 한 뒤에도 깎인 점수를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에 있는 발표 점수도 정말 후하게 주십니다. 조별과제 팀원을 잘 만난다면 문제 없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1. COMM 1003 Basic course: film lecture(3학점) Russell Sharman 교수님 수업입니다. 저는 학점을 채우기 위해 영화도 보고 쉬어가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수강신청을 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수업입니다. 수업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50분이며 영화 이론 설명 후 영화 한 편을 보고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 주십니다. rate my professor 사이트에서 교수님 후기가 정말 좋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재는 굳이 살 필요 없으며, 수업 시간에 다루는 ppt 자료들은 따로 올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수업시간 마다 필기를 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 퀴즈를 보면 되는데 구글 검색 또는 Quizlet 사이트에 가면 많은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은 중간, 기말이 있고 모두 객관식이지만 시험 직전에 교수님께서 요약 정리해 주신 내용 만으로는 다 맞추기는 힘들고 수업시간에 봤던 영화 내용에 대한 문제도 출제됩니다. 추가 점수를 받기 위한 방법들이 많으니 교수님의 강의 계획서를 잘 읽어보시고 미리 점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p> <p>2. ECON 2143 Basic economy: theory and practice(3학점) 제가 들었던 수업 중에 제일 재미있었고 유익했던 경제학 수업입니다. Jing Li 중국인 교수님이라 수업 내용도 빠르지 않고 설명을 정말 꼼꼼히 잘 해 주십니다. 수강 인원이 많기 때문에 출석은 따로 체크하지 않습니다. 대신 supplemental instruction 이라는 보충 수업에 참여해야 하며 매 주 2번의 온라인 퀴즈가 있습니다. 학기 중에 3번의 시험 외에 한 번의 시험이 더 있는데 이 시험은 선택 시험으로, 점수가 낮은 학생들이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시험은 모두 객관식이며 영어로 전공 과목이 아닌 경제학을 배우는 것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매 주 퀴즈 공부를 하면서 복습을 꾸준히 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p> |
|------------------------|---|

| | |
|---------------------|--|
| | <p>3. HRWD 3113 Foundation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3학점) 인적자원 관리 학점 인정을 위해 들은 수업입니다. 온라인 수업이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러 강의실에 갈 필요도 없고 퀴즈도 오픈북 형태이지만 교수님께서 채점을 정말 꼼꼼히 하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깎이고 마지막에 8페이지 분량의 레포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10번 이상의 퀴즈가 거의 주마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퀴즈가 정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논문 자료 출처까지 제시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주말에 에세이를 쓰며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면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p> <p>4. PBHL 4643 Multicultural health(3학점) 국제보건개발 학점 인정을 위해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수업이며 4학년을 위한 수업이지만 내용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교과서는 중간 및 기말 시험을 위해 반드시 구매 후 읽어야 합니다. ppt 수업 자료 외에 교과서에서도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논문 분석 및 에세이 작성 후 조별 토론 수업도 2번 있지만 어려운 주제는 아닙니다. 이 외에 개인 과제는 거의 없고 수업시간에 문화 교류 수업이 몇 번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업하시는 것 외에 International Culture Team에서 국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에 조별 발표가 있으며 중간 및 기말 시험은 모두 객관식이고 어렵지 않습니다.</p> <p>저는 교과서를 직접 구매 하는 것이 비싸기도 하고 나중에 짐이 될까 걱정이 되어 한 학기 렌트 후 반납하였습니다. 학교 북스토어나 디슨 스트리트에 있는 서점에 가보고 렌트 비용이 더 싼 곳에서 빌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chegg라는 사이트에서 전공 책 몇 권을 렌트 했으며, 책 반납시 다시 택배를 보내는 것도 간단합니다.</p> |
| <p>프로그램 운영</p> | <p>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은 개강 약 일주일 전부터 시작됩니다. 한국과 시차가 14시간이나 나기 때문에 약 일주일간의 오티 주에는 시차적응도 해야 하고 처음 만나는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많이 피곤합니다. 오리엔테이션 일정이 생각보다 활동적이었고 뻘뻘하지만 친구들을 알아가면서 친해질 시간이 많습니다. 교환학생 담당자는 office of study abroad & international exchange 부서의 (Study abroad house) Brian Poepsel 입니다. 교환학생 파견 전에는 담당자가 로라였지만 17년 9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새로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았을 때 답변 사항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국제 학생들과 함께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에 대한 안내는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으며</p> |

| | |
|--|--|
| | <p>방문학생들과 함께 페이지빌 근처로 캠핑을 가거나 여행을 짧게 다녀오는 활동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국제학생들을 위해 thanksgiving day 행사, 할로윈 파티, I-family, I-friend, campus cousin, conversation club 등등 ISS office에서의 크고 작은 프로그램이 정말 많습니다. 조금의 관심만 가지고 있어도 쉽게 참여하여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열리는 행사들은 http://up.uark.edu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페이스북 이벤트에 들어가보면 생각보다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한국인 학생들이 만든 동아리도 있으며 봉사활동이나 인턴십 참여도 가능합니다.</p> <p>학교에서는 라이팅 센터와 튜터링 센터가 있어서 글쓰기 과제 첨삭 지도 및 수업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문이 생긴다면 교수님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p> |
|--|--|

3. 생활전반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날씨 | <p>8월에 갔을 때부터 정말 많이 더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름이 꽤 길었고 그만큼 가을이나 겨울이 늦게 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12월 종강 후 바로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한달 쯤 쉬다가 돌아갔습니다. 1월, 2월에는 생각보다 너무 추운 날이 많고 3월까지의 겨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날씨는 추운데 눈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4월에도 날씨가 따뜻해지는 듯 하다가 갑자기 추워지는 날도 있으니 패딩이나 점퍼는 꼭 귀국하기 전까지 집에 택배 보내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저는 출국 때 28인치 캐리어 한 개, 26인치 캐리어 한 개와 백팩을 메고 갔습니다. 블라우스나 셔츠 종류는 가끔 있는 특별한 행사에 입고 갈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만 챙겨와도 충분하고, 기본 티나 맨투맨, 편하게 입을 바지를 챙겨오는 게 좋습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 많고 비가 올 때에는 바람이 불어 우산을 써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비나 바람막이를 가져오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p> |
| 안전 | <p>아칸소 대학교를 다니시는 교환학생 분들은 대부분 학교 기숙사나 학교 근처에 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첫 학기에는 기숙사에서 지냈기 때문에 항상 저녁 먹고 나서 기숙사에서 시간을 보냈고, 두 번째 학기에는 학교 바로 근처 아파트에서 지내면서 밖에 돌아다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10시 전까지 집에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생활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부득이하게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 학생증 뒷 쪽에 있는 safe ride에 전화하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p>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숙소</p> | <p>학교기숙사(O) 홈스테이 () 외부 숙소(O) 기타()</p> <p>저는 첫 학기에 Holcombe 기숙사에서 살았고, 다음 학기에는 Duncan 아파트로 옮겨갔습니다. 기숙사는 공동 샤워실 및 공동 화장실이 있으며 세탁실도 공용으로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엌도 있고 냉장고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Holcombe에서는 국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행사가 많이 열리는 곳이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 점은 정말 편했습니다. 시설도 좋은 편이지만 기숙사에 살면 meal plan이 필수인 게 마음에 들지 않아 아파트로 옮겨갔습니다. Duncan 아파트도 캠퍼스 Dickson street 바로 근처에 위치해 있고 강의실까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아파트에 산다면 meal plan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아파트 10분 거리에 있는 Walmart neighborhood market에 가서 필요한 음식들을 매 주 가서 구매하였습니다. 아파트에서는 4명이 한 집에 사는 형태인데 화장실 샤워실 및 세탁기는 공용이며 각자 방에서 생활합니다. 거실, 부엌, 냉장고, 오븐 등등 필요한 가구들은 거의 다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에 사는 경우 방음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하는 룸메에 따라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강 후 아파트에서 짐을 싸고 나갈 때 마지막에 나가는 사람이 청소 책임자이기 때문에 미리 룸메들과 이야기 해서 조금씩 청소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식사</p> | <p>학교 Meal Plan (O)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 외부식당 () 직접 요리 (O) 기타 ()</p> <p>학교 기숙사 식당 meal plan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는 비용 대비 만족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음식들이 보여서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식당 음식에 대한 호감도가 낮아졌고 먹는 양도 줄어들면서 밥을 먹었나 싶을 정도로 배가 자주 고팠습니다. 두 번째 학기에는 아파트로 옮겨가면서 제가 음식을 직접 사서 해 먹었고, 냉장고도 집에 있으니 너무 편했습니다. Holcombe에 있을 때에는 냉장고가 지하에 있고 제 방은 3층이라 음식을 보관하는 것도 너무 귀찮았고, meal plan을 억지로 이용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10회 이용하는 것을 구매했습니다. 10회 meal plan을 구매하면 125불 플렉스를 제공해 주는데, 캠퍼스 내에 있는 카페나 club red라는 곳에서 간식거리를 사먹을 수 있습니다. 첫 학기에는 학교 행사에 자주 참여하면서 일요일~토요일 7일 동안 10번을 다 못 쓰고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면 이용하지 못한 횟수는 사라지게 됩니다. 기숙사 식당 이용 시간이 지나면 Union이나 스타벅스 옆 slim chicken, taco bell 등의 식당에서 meal trade를 meal plan 대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식당을 이용해 보고 마음에 들지 않다면 더</p> |

| | |
|----|--|
| | 늦어지기 전에 아파트로 옮기는 것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 교통 | Holcombe 기숙사가 위치가 좋아서 다른 강의실로 갈 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생회관 Union과도 5분 거리이고 학교 내에 있는 작은 월마트에 가거나 Quad라는 식당도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Duncan 아파트에 산다면 Union까지 적어도 10분은 생각해야 하며 가는 길목에 있는 언덕에 오르기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것입니다. 학교 내에 무료 셔틀 버스가 있는데 평일에는 자주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미국 내에서 비행기 가격은 생각보다 꽤 비싸기 때문에 여행을 미리 계획해 놓고 하루빨리 비행기표를 예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 항목 | 비용 |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
|------|--|---|
| 항공료 | 출국: 130만원 입국: 80만원 | 편도로 구매 (왕복 추천합니다) |
| Fees | Housing advance charge: 200 USD Housing processing charge: 40 USD | 맨 처음 기숙사 신청 시 내는 비용 첫 학기에만 내면 됩니다. |
| 보험료 | International health insurance undergrad 2017-2: 814 USD 2018-1: 1129 USD | 자매대학 건강 보험 |
| 숙소 | 3,049.50 USD (2017-2) 3,113 USD (2018-1) | Holcombe room charge Duncan Avenue APT room charge |
| 식비 | 1,723 USD (2017-2) | Housing meal charges |
| 교통비 | - | |
| 책값 | 100 USD | 한 학기 당 100 USD |
| 기타1 | 총 여행 비용 3000 USD | 뉴욕, 플로리다, 로스앤젤레스 |
| 합계 | | |

The University of Arkansas

Charges

2018-21

| Date Posted | Item Description | Amount | |
|-------------|--------------------------------|-----------|-----|
| 2017-07-07 | Housing Meal Charges | 1,723.00 | USD |
| 2017-07-11 | Holcombe Room Charge | 3,049.50 | |
| 2017-07-17 | ID Card Fee | 22.00 | |
| 2017-07-17 | New Student Fee | 85.00 | |
| 2017-07-17 | First Year Experience | 55.00 | |
| 2017-07-17 | Int'l Student Fee Undergrad | 95.00 | |
| 2017-07-17 | Int'l Health Insur Undergrad | 814.00 | |
| 2017-07-18 | Housing Advance Charge | 200.00 | |
| 2017-07-18 | Housing Processing Charge | 40.00 | |
| 2017-07-19 | Nonresident Tuition Undergrad | 0.00 | |
| 2017-08-24 | TUIT GLOBAL CAMPUS UGRD | 0.00 | |
| 2017-08-24 | CTED Off-Campus Admin Fee | 0.00 | |
| 2017-08-24 | WCOB Tuition Undergraduate | 0.00 | |
| 2017-08-25 | Library Fee UGRD | 33.24 | |
| 2017-08-25 | Health Fee Undergrad | 87.00 | |
| 2017-08-25 | Transit Fee Undergrad | 35.40 | |
| 2017-08-25 | Tuition Undergraduate | 2,953.44 | |
| 2017-08-25 | Network/Data Systems Fee UG | 125.76 | |
| 2017-08-25 | Student Media Fee Undergrad | 10.32 | |
| 2017-08-25 | Facilities Fee Undergraduate | 187.20 | |
| 2017-08-25 | EDUC College Fee Undergraduate | 204.48 | |
| 2017-08-25 | Expend Music Sup & Inst Rep-UG | 0.00 | |
| 2017-08-25 | Student Activity Fees Undergra | 31.68 | |
| 2017-08-31 | Reciprocal Exchange Waiver | -3,925.52 | |

Total Charges

5,826.50 USD

The University of Arkansas

Charges

| Date Posted | Item Description | Amount | |
|-------------|--------------------------------|-----------|-----|
| 2017-12-12 | TUIT GLOBAL CAMPUS UGRD | 738.36 | USD |
| 2017-12-12 | CTED Off-Campus Admin Fee | 90.00 | |
| 2017-12-12 | Reciprocal Exchange Waiver | -1,144.88 | |
| 2017-12-12 | WCOB Tuition Undergraduate | 221.52 | |
| 2017-12-12 | Int'l Student Fee Undergrad | 95.00 | |
| 2017-12-12 | Int'l Health Insur Undergrad | 1,129.00 | |
| 2017-12-13 | Duncan Ave Apt Room Chrg | 3,113.00 | |
| 2018-01-08 | Int'l Hlth Insur Waiver - UG | -418.00 | |
| 2018-01-18 | Library Fee UGRD | 33.24 | |
| 2018-01-18 | Health Fee Undergrad | 87.00 | |
| 2018-01-18 | Transit Fee Undergrad | 35.40 | |
| 2018-01-18 | Tuition Undergraduate | 2,215.08 | |
| 2018-01-18 | Reciprocal Exchange Waiver | -2,879.04 | |
| 2018-01-18 | Network/Data Systems Fee UG | 125.76 | |
| 2018-01-18 | Student Media Fee Undergrad | 10.32 | |
| 2018-01-18 | Facilities Fee Undergraduate | 187.20 | |
| 2018-01-18 | EDUC College Fee Undergraduate | 153.36 | |
| 2018-01-18 | Expend Music Sup & Inst Rep-UG | 0.00 | |
| 2018-01-18 | Student Activity Fees Undergra | 31.68 | |

Total Charges 3,824.00 USD

5. 출국 전 준비사항

우선페이엇빌은 대도시가 아니며, 한인마트가 멀리 있어서 차 없이 한인마트까지 혼자 가는 것이 힘듭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차로 갈 수 있고 한인식당도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가는 곳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근처 마트에 가더라도 김치는 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가면 당분간 한식 생각이 많이 나기 때문에 출국할 때 캐리어에 한식을 조금이라도 꼭 챙겨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중에 한국에서 미국까지 택배를 보내는 것은 정말 비쌉니다. 다른 짐은 최대한 줄이고 정말 필요한 짐만 챙겨가세요. 생활용품 등은 월마트에 가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입국 할 때 짐이 많아서 중강 후 박스 한 개에 두꺼운 옷을 넣어 택배를 보냈고 캐리어 두 개, 가방 한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DHL을 이용하면 생각보다 저렴하게 한국으로 택배를 보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기 위해 개강 일주일 전부터 페이엇빌에서 지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점은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는 주에도 학교 기숙사 식당에서 meal plan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변에 아는 한국인도 없고 교환학생 담당자 분께서도 이야기해주지 않으셔서 저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증을 만들고 난 뒤에 또는 학생증이 없더라도 오티 주에는 기숙사 식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식당을 이용하면서 meal plan 10회권이 마음에 들지 않다면 일주일

7회권도 있으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meal plan을 바꾸는 기간은 개강 후 7일까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메일 문의가 이루어지면 일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문의도 빨리 해야 합니다. 식당 이용하는 게 자신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아파트로 옮겨가는 것을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짐도 많아지고 방 옮기는 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캠퍼스 근처 자취방은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니 복잡할 수 있고 구비해야 할 가구도 많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으며, 기본적인 가구는 다 갖추어져 있는 Duncan 아파트에서 1년 동안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housing.uark.edu에 메일을 보낸다면 친절하게 답변해줍니다. 만약 룸메가 잘 맞지 않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RA에게 연락하거나 housing center에 문의하면 됩니다.

수업에 관련해서는 첫 학기라고 ELAC 수업을 많이 듣는 것을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제 학생들만 들을 수 있는 수업이라 수강 인원이 적고, 인원이 많지 않으면 폐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국제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지만 과제 양이나 교수님의 스타일에 따라 생각보다 힘든 수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Rate my professor의 평가도 참고할 만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너무 그 기준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1,2학년 수업 위주로 들으라고 했던 기억이 나지만 듣고 싶은 수업이 있다면 3,4학년 수업도 겁먹지 말고 시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이 어렵거나 의문 사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교수님 또는 수업을 같이 듣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정말 친절하게 자세히 이야기 해 줄 것입니다. 개강 첫째 주는 수업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지며 교수님 스타일, 과제, 시험 및 조별과제에 대해 파악한 후 그 주에는 얼마든지 수강신청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3,4학년 수업에는 필수 선행 과목이 있을 수 있으니 자신이 이수하였던 전공 수업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메일을 주고받는 게 정말 생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메일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수업 취소 또는 드물지만 수업 장소 변경 등의 공지사항이 메일로 오기 때문에 틈틈이 메일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중간 및 기말 시험을 볼 때에는 시험 장소, 시간, 답안지 유형 등을 교수님께서 메일로 또는 수업시간에 미리 알려주는데 답안지를 구매해서 시험을 보러 간다는 게 한국과는 다릅니다.

미국 출국하기 전에 한국에서 미리 유심 칩을 구매하여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월마트 에서도 유심을 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저는 한국 메가텔 이라는 사이트에서 미리 미국 요금제도 결제하였고 미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핸드폰을 이용할 수 있어 정말 편했습니다. 또한 오리엔테이션 주에 시간이 있을 때 미국 은행에 가서 미국 계좌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한 시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오전에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미리 예약하고 갈 수도 있지만 저는 예약하고 가셔도 한 시간이나 기다린 적이 있기 때문에 예약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간다면 평범한 일상이 새로운 경험이 되고 의사소통을 위해 하루 종일 영어를 써야만 한다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면서 다른 행사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생활 하다 보면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문화를 접할 수 있습니다. 행사에 자주 참여한다거나 미국에서 새로 사귀 친구들과 지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날 기회도 많습니다. 어느 곳이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나이, 성별 상관없이 모두가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국제학생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지내면서 식습관도 바뀌었고 새로운 취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지내면서 간단한 레시피를 찾아 직접 요리도 해보고 간식거리도 잘 챙겨먹고 과일도 자주 먹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여유롭게 학교 캠퍼스 산책도 다니고 매일 한 시간씩 꾸준히 운동을 했습니다. 2학기에는 월, 금 공강이라 여유시간이 정말 많아 친구들에게 연락도 먼저 하고 약속을 잡아 자주 만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국 친구들은 문자를 하더라도 답장이 늦는 경우가 많고 약속을 당일 또는 전 날에 취소하거나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속 시간도 지키지 않는 친구들도 많지만 문화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학기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발표에 대한 부담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발표 수업이 많아서인지 걱정이 정말 많았었는데, 말만 영어로 할 뿐이지 대본을 가지고 계속 연습한다면 문제 없이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ELAC 수업이긴 했지만 PPT자료로 발표 전 날 10번 이상 연습했더니 대본 없이 발표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 번 발표 해 보면서 긴장감도 줄어들었으며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준비하면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학기에는 화,수,목 3일 강의를 들으러 가면 되었지만 온라인 수업이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매 주 있었던 퀴즈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으며 열심히 했지만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깎여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매 주 주말 퀴즈를 시작 하기 전부터 하기 싫어하는 저를 보며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환학생으로 파견된다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지 말고 시간을 딱 정해서 그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성적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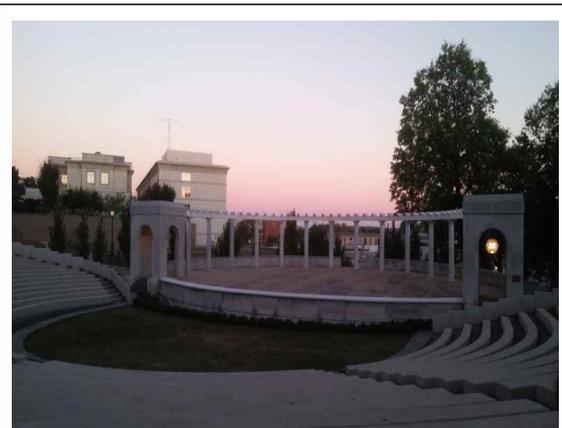
미국이든 한국이든 팀플은 정말 힘든 과제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다들 과제를 닦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감기한 당일에 급하게 과제를 제출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팀원을 잘 만나면 순조롭게 과제를 끝마칠 수 있지만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니 항상 연락처를 주고 받은 후 과제에 대해 상기시켜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수업시간에 미국 학생들은 교수님의 질문에 바로 바로 앓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한국에서는 수업시간에 교수님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미국의 수업 분위기가 정말 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것 때문에 다른 교수님들 또는 어른들을 대할 때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나이 상관 없이 다른 사람과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으며 언니, 오빠, 교수님 등등

형식적인 호칭은 사용하지 않고 교수님께 편하게 인사하여도 무방합니다. 이 외에 다른 과제나 수업 내용뿐만 아니라 생활하는데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주변 친구들 또는 교수님께 바로 연락드릴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길을 잘 모르겠다면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면 누구든지 친절히 답해줄 것입니다. 도움을 구할 곳은 정말 많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미국인들에게는 정말 평범한 일상생활이 저에게는 정말 의미 있고 특별한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일들이 저에게 다른 시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교환학생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교환학생 가기 전에는 외국인을 보면 별 생각이 없었지만 다른 나라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칸소 대학교에서는 한국인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되게 특별하게 느껴질 수 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간다면 좋은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에 지원하여 미국으로 가게 된 것 만으로도 이미 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환학생을 다녀온 뒤 남은 한 학기를 마치고 바로 졸업 할 예정입니다. 1년동안 전공 과목을 많이 듣지는 못했지만 저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하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Old main



Greek theatre



Ice skating: I-friend 행사



Picnic: I-friend 행사



Lights of the Ozarks



Wilson Park



Eureka Springs



Crystal bridges museum